

가학산 휴양림 관광객 유인책 없나

20억 들여 편의시설 조성 불구 이용객 급감

해남군, 내년 6억 들여 등산로 등 재정비 추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남 가학산 휴양림이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9년 20억 8천900만 원을 들여 가학산 일대 100ha 군유림에 숙박시설 13동과 정자, 다목적 광장, 물놀이장, 동물(원숭이, 사슴)막사 등을 갖춘 휴양림을 개장했다.

최근 해남군의 의뢰를 받아 '가학산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5개년 계획' 용역을 시행한 전남대 안기완 교수의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학산휴

양림은 지난해 1천1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수도 2000년 6천657명에서 2001년 5천 427명, 2002년 4천523명, 2003년 2천668명, 2004년 3천290명, 2005년 2천986명, 2007년 2천638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팀은 가학산휴양림의 문제점으로 ▲접근성 결여 ▲산림욕의 필수요소인 자연경관과 계곡·동식물 등 자원부족 ▲세미나장·단체숙박시설 등 편의 시설부족 ▲체합프로그램 미

비 ▲위생상태 불량 ▲시설 노후화 등을 꼽았다.

특히 가학산휴양림내에 조성된 수영장은 인근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탓에 수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영장 부지도 바닥이 고르지 못해 취사장 등을 포함한 일부 시설이 폐쇄된 상태다.

용역팀은 이밖에 일용직 근무자들의 청소 등 관리 소홀과 책임성 결여 등도 관광객들이 의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용역팀은 휴양림 보완사업을 3단계로 나눠 1단계(2009~2010년) 50억여 원, 2단계(2011~2012년) 30억여 원, 3단계(2013~2014년)에 27억여 원 등 총 10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재 단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에 따라 우선 2009년에 6억 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을 재 단장하고, 숲속교실과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기완 교수는 "자연휴양림은 일반 관광시설이 아닌 산림을 보존하면서 휴식과 레저문화를 즐기는 곳"이라면서 "시설보완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으로 재 단장한다면 해남을 상징하는 휴양림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용역팀이 제시한 사업안은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예산인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가학산 휴양림을 해남의 대표 명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갑작스레 몰아 닥친 추위로 이랑곳하지 않고 농민들이 강진군 움천면에서 토하(土蠶)잡이에 여념이 없다.

'궁중 진상품' 토하 잡이 추운 줄 몰라요

강진 움천면 21농가 3천여kg 생산 3억 소득

맑고 깨끗한 청정 계곡물에서만 사는 민물새우인 토하(土蠶)잡이가 강진군 움천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하로 유명한 움천면은 지역 전체가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돼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정지역이다.

움천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계곡의 맑은 물을 이용, 토하 생산

에 나서고 있는데 21농가가 10여ha에서 연간 3천여kg의 토하를 생산해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토하잡이는 한해 벼농사가 모두 끝나고 가능해 농의(農의)소득으로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벼농사보다 5배 이상 고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농민들은 계곡물을 끌어들이 서식장을 만들고 먹이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 상태에

서 토하를 키우고 있다.

움천 토하는 궁중 진상품으로 맛이 일품이며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 밥에 듬뿍 넣어 비벼 먹으면 식욕을 되찾는데도 으뜸이다.

상큼한 자연의 흙 향기와 짙짙한 듯하면서도 허겁을 감칠 나게 자극하는 오묘한 맛이 일품인 토하젓은 자연발효식품으로 강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매김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이제부터 '주란' 이라 불러 주세요"

농협 담양지부, 이주여성에 한국 이름 지어주기

"이제부터는 '주란'이라고 불러 주세요"

담양군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이 농협의 도움으로 예쁜 한국 이름을 갖게 됐다.

20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에 사는 4명의 이주여성이 농협 도움을 받아 한국 이름을 갖게 된 데 이어 지난해 6명이 개별허가를 신청했다.

농협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하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하나로 '외국 여성 농민 신분상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인의 가족인 이주여

성들은 서류를 갖춰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접수 뒤 3개월 정도 지나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월산(月山) 한(韓)씨, 담주(潭州) 주(周)씨, 용면(龍面) 조(趙)씨 등 모두 자신이 사는 마을을 본(本)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성과 이름을 지었다.

필리핀에서 시집 온 세실리아 아이스카안(43)씨는 가수 문주란 씨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주란(周蘭)'으로 정했으며 마리셀 엠비카(36·필리핀)씨는 장미꽃을 연상하게 하는 장미화(張美花)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pb17@



다문화 가정주부 김장 담그기 체험

한전 나주지점

한국전력 나주지점(지점장 조태웅) 사회봉사단이 지난 17일 '다문화 가정 초청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주부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감사의 지도로 김장을 직접 담가 보고 시식회도 가졌다.

조태웅 지점장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문화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장학금에 졸업 후 채용까지 책임져요"

나주시 '관-학 상생 프로젝트' 추진

나주시가 지역 대학생과 고교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예비 공무원으로 양성, 특별채용하는 '관-학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주시는 20일 인제 확보와 지역학교 발전 등을 위해 관내 대학생과 고

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졸업 뒤 채용을 보장하는 공무원 특별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정년퇴직 등 인력수요를 고려, 필요한 분야의 학생을 미리 접적어 양성하는 이 계획은 시가 1995년 공무

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신설한 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동산대 도시계획·건축 분야 고 학교에 다닌 뒤 졸업 후 시청 공무원(기능10급~기술9급)으로 특채되고 4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시는 외부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예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전문 지식 등을 판단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가 본격 조성되면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로까지 선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장흥, 서울 투자설명회 개최

5개 업체 1,600억 유치

장흥군이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5개 업체와 1천6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장흥군은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도권 우량기업 및 출향 기업, 향우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군지역 지자체 가운데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기는 장흥군이 처음이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이명흠 장흥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읍면 기업유치 위원장 등이 참석해 해당과 회진 산업단지 조성현

황 등을 설명하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장흥군은 이날 고려대 산학협력단, 송도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 넥서스 카운티·(주)신안메이 드·(주) 황금마리나·(주)대한 트랜스·(주)아폴로테크 등 5개 업체와 1천600억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수도권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장흥을 수도권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지방 산업단지 조성의 성과 및 향후 투자유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성군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군 선정

장성군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장성군보건소는 양·한방을 연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 방문 진료료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34명으로 26개 관리팀을 구성해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양·한방 진료를 펼쳐왔다. 시상금은 500만원이며 오는 24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최우수 사례 발표도 하게 된다. /장성=류충진기자 yjs2@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들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저하 예방
- 피부 노화 방지 및 탄력성 증진
- 미용효과 (비타민 E)
- 항산화작용 및 면역기능 강화
- 항노화, 노년 건강

아연의 보충
- 아연은 면역기능을 높여줍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jinfarm.co.kr